



미국경제, 일본식 장기불황 진입 논란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최근 미국경제의 더블딥 우려 증가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채권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, 이러한 모습이 일본의 장기불황 초기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됨.

- 8월 19일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950년 이후 처음으로 장 중 2%를 하회했으며, 24일 현재 2.26%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근시일내에 2%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.
- 일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996년 2% 이하로 하락한 이후 현재까지 2%를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24일 현재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0.99%에 머물고 있고, 니케이 지수는 최고치를 기록했던 1989년에 비해 75% 하락한 8,700 수준을 나타냄.
- 현재 미국의 경기둔화는 부동산 시장 붕괴, 은행 부실화, 제로금리, 과도한 부채 비율, 정치적 교착 상태 등 많은 면에서 일본의 장기불황 초기와 유사하다는 지적임.

■ 한편, 미국의 경우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, 경기침체에 선제적인 정책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경제의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도 제기됨.

-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디플레이션에 시달려 왔으나, 미국의 경우 일본과 달리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, 물가연동 채권 수익률 분석에서도 향후 10년간 2.2%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등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.
- 노무라 증권이 폴 시어드(Paul Sheard)는 일본의 경우 시의적절한 정책대응 실패와 이른 출구전략으로 경제를 다시 침체에 빠뜨렸다고 지적하고, 미국은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함.
-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경기둔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동시에 장기침체에 진입할 경우 미국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일본의 경우보다 더 클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.

(Financial Times 등, 8/19)